

“VIV-EUROPE 94”를 참관하고



김정균
(코하트무역 대표)

VIV-EUROPE '94는 19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네덜란드의 유트렐(utrecht)에서 100개 국가로부터 50,000명 이상이 전시를 참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VIV-EUROPE은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및 전세계 축산기구를 이끌어 갈 정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번 전시회의 참관은 한국에서도 양돈, 양계, 축산기구 및 약품, 사료업계에서 약 150명 정도 참관을 했으며 많은 발전과 행운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가축농가는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첨단 기계화 및 구체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세계에서부터 축산기자재 합리화 설비 및 기록경영과정까지 많



세계 축산 박람회 (VIV-EUROPE) 전시장 전경, 왼쪽이 필자 김정균 코하트무역 사장

은 것을 보고 배웠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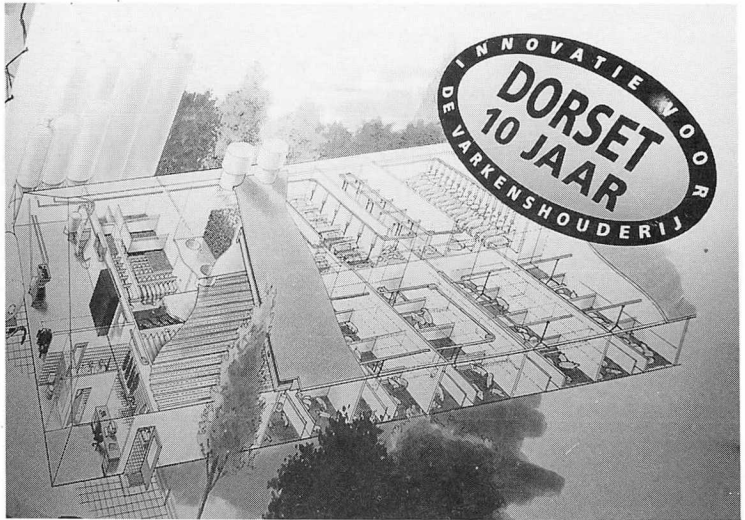
특히 양돈의 축산기자재는 날로 번창하여 축사의 시공은 완벽한 단열의 우레탄 폼 및 벽돌로 발전하고 있으며, 바닥재

는 종전의 PVC, PE 제품보다도 한단계 높은 Wire-Mesh, Expanded Metal에다 우레탄 코팅을 하여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강한 제품으로 보급되는 추세이다. 내구연한은 10년 이상을

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습식급이기는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보다도 더 강하고 더 부드러운 polyethylene 재질로 하여 1~6단계까지 사료 급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를 부착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의 관리에 중요한 임신진단기는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진단기와 동일한 기구를 사용함으로써 모든의 공태돈을 조기 발견하여 모든의 기록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환기는 많은 연구 과제를 얻었다. 돈사의 구조에 따라 알루미늄 천공을 이용하여 돈사 내부의 환기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chimney Ventilation Type(굴뚝형)이 있으며, 공조시스템을 이용한 벽면 부착형 입·배기, 저압환기팬을 이용한 횡단형, 릴레이형 등등 많은 형태로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여름철 혹서기를 대비하여 쿨링 패드(Coolingpad System)와 대형 환풍기(32", 36", 50")는 우리가 꼭 연구해야 할 우리나라 여름철 혹서기의 연구과제이다.

쿨링 패드를 이용한 대형 환풍기(50" fan)는 여름철 혹서기에 모든의 관리에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비육돈은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사료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축사 설계도면



▶ 축사 환풍기, 환풍기는 대형화 추세이다 (32", 36", 50"팬, 가격 30~40만원, 50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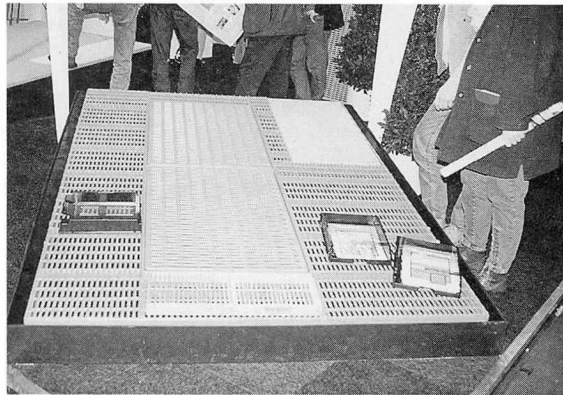
▶ 온·습도 유지 보수 쿨링 팬 시스템(가격 100~200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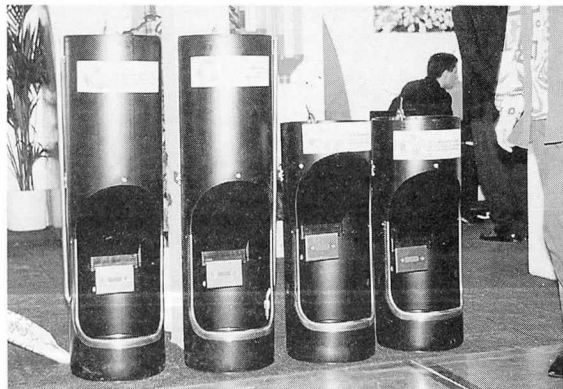
◀ 굴뚝형 환기시스템
(가격 100만원대)

효율 극대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양돈인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 양돈 국가에서도 여름철 혹서기 및 겨울철 환기는 매우 중요함으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번 VIV-EUROPE '94의 특징인 것 같다. 또한 이번 VIV-EUROPE '94를 통하여 가장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모든 축산기구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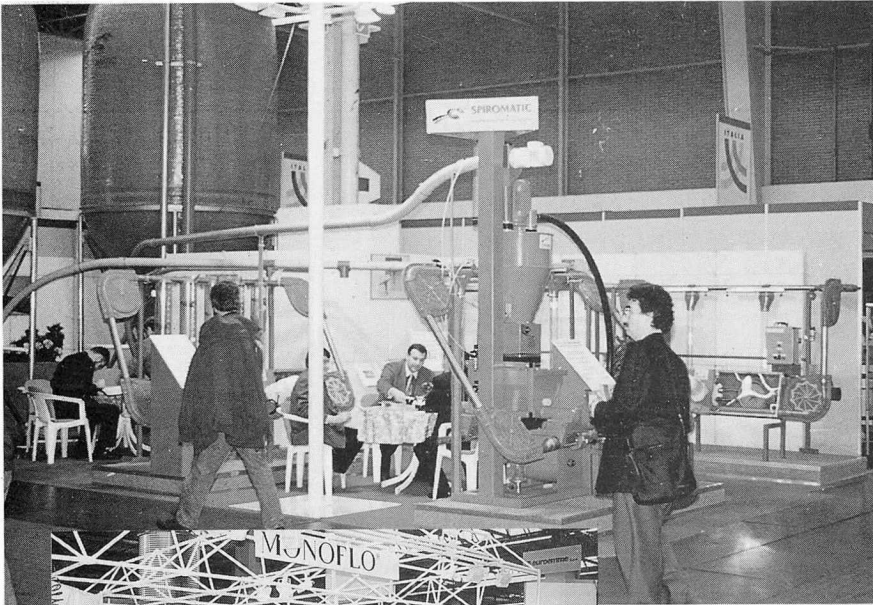
즉 자동급이기의 경우 체인, 오거, 디스크, 파이프, 계량통, 코너, 드라이브, 유닛 등등 한 제품에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 가격 혁명을 이룬 점이 특징



◀ wire-mesh에
우레탄을 코팅한 분만틀
(가격 20~30만원대)



◀ PE 습식급이기
(가격 8~9만원대)



◀ 최첨단의 자동급이 시스템



monoflo 급수기 니플(가격 2~3천원대)



▲ 완벽한 환기 시스템을 갖춘 무창돈사의 전경

이라 할 것 같다.

종래에는 양돈인 여러분이 축산기구 제품을 하나 구입하려면 국산제품이든, 외산제품이든 가격이 비싸서 과감히 현대화 기구를 투자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분야별 분업화로 품질의 향상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내 제품보다도 향상된 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전시를 통하여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 축산도 국제화 가격에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실리추구의 외교 경쟁속에서 총탄없는 무역전쟁이 날로 심각한 21세기의 국제화를 우리 축산인은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美豚**

